

자료제공 : 2024. 1. 26.(금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

공원여가정책과장	박미애	2133-2010
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공원관리팀장	심현보	2133-2028
--------	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: 4쪽

담당자	김봉선	2133-2033
-----	-----	-----------

### 서울시,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421억 원 소송 '1심 승소'

- 서울시-국가철도공단 무상사용 합의(2010.12월) 후 변상금 요구 소송 '서울시 승소'
- 3년('21년~) 걸친 소송 끝에 1심 승소... 재판부, '부과 대상이 아닌' 것으로 판결

- 서울시는 그간 국가철도공단에서 '경의선숲길공원'에 지속적으로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3년여 간의 재판 끝에 '부과 대상이 아닌' 것으로 1심 판결 나왔다고 밝혔다.

- 2024. 1. 26. 서울행정법원(제1부) 판결 (세부 판결이유는 추후 제공)
- 국유지(99,736㎡) 사용 변상금 421억원 (기간 : 2017. 7. ~ 2022. 12.)  
변상금 최초 부과일(2020. 11. 25.), 소 제기일 (2021. 2. 22.)

-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지상부에 자리한 '경의선숲길'은 2010년 서울시-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'국유지 무상사용' 약속을 통해 조성됐다. 그러나 2011년 4월 「국유재산법」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 사용료(변상금) 421억 원을 서울시에 부과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.

- 2010년 서울시(당시 오세훈 시장)와 국가철도공단(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조현용 이사장)은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과 역세권개발(홍대입구역, 공덕역 등)에 상호 협조하기로 협약했으나 이듬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끔 개정되며 문제가 발생했다.

※ 「국유재산법」 시행령 제32조(2011. 4. 1. 신설)

- 서울시는 지하화된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~가좌역 약 6.3km에 경의선숲길을 조성하여, ‘연트럴파크’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시민과 많은 국내외 방문객으로부터 사랑받아 왔다. 또 국가철도공단은 인근 공덕역, 홍대입구역 개발을 통해 약 2,7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.

- 경의선숲길공원은 1906년 4월 완전개통한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하며 100년이 넘도록 철도로 인해 단절됐던 지역에 공원을 조성,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쾌적한 정주 환경과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고 지역 상권 활성화, 도보생활권을 늘리는 등 주변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.

- 1월 26일(금)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국가철도공단에 ‘변상금 부과를 취소할 것’을 주문하였으며 서울시는 1심 판결을 환영하는 가운데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.

-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사용할 경우 1년 이상 무상사용이 되지 않는 「국유재산법」 시행령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.

- 서울시는 이번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될 시 421억의 기부과된 변상금 뿐 아니라 매년 82억 이상(10년으로 환산 시 820억 이상)이라는 예산을 납부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.

## 붙임1

## 경의선숲길 조성 개요

- 위 치 : 마포구 경의선 지상부 (홍제천 ~ 용산문화체육센터)
- 규 모 : 6.3km, 102,716㎡(국 99,736 공 2,980)
- 일평균 이용객 : 24,250명 (2020년 기준)
  - ※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홍대 '엔트럴파크'로 소개(대한민국 구석구석, 대한민국 100선)
- 사업기간 : '10. 12. 22. ~ '16. 7. 31.
- 도시계획 : 공원, 철도 (중복 결정)
- 주요시설 : 산책로, 휴게시설, 계류, 공원등, CCTV, 관리실 등
- 공원조성비용 : 358억원(시비) ※ 연간관리비용 : 약 20억원(시비) ('23년도 기준)



[연남동 일대]



[대흥동 일대]



[염리동 일대]